

광주시, 랜드마크 소각장 추진

강기정 시장, 덴마크 방문 스키슬로프 등 갖춰 명소된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



강기정(오른쪽 두번째) 광주시장 등 광주시대표단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도심에 위치한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를 방문해 내부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한때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 친화적이면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도 주민 친화형이자 랜드마크가 되는 소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광주시 대표단은 이날 코펜하겐 도심에 자리 잡은 친환경 소각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를 시찰했다.

'코펜힐(copenhill)'로도 불리는 아마게르 바케는 친환경이자 지역 랜드마크화에 성공한 세계적인 소각시설로, 아마게르라는 지명, 바케는 덴마크어로 언덕이라는 뜻이다.

평지가 대부분인 코펜하겐 한가운데에 언덕처럼 우뚝 솟은 소각시설 건축물을 짓고 옥상에 정상 높이 85m, 슬로프 길이 450m의 스키장과 인공암벽장을 만들어 스키장이 없던 지역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실제 2017년 조성된 이후 연 5만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재탄생했다.

현재 코펜하겐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65만여명과 사업장 6만8000여곳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 40만t 중 58%를 소각하고 유리-플라스틱 중 39%는 재활용하고 있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와 난방 에너지는 15만 가

구에 공급하고 있다.

강 시장 등은 발전소 운영사인 ARC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로부터 폐기물 처리 전 과정과 연소가스 처리를 위한 3단계 최첨단 설비 도입 등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친환경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연 처리(저감) 설비와 소각로, 이달 말 완공을 앞둔 탄소 저감 장치 등을 시찰했다.

광주시도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는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대형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서 6곳이 신청한 상태다. 시

는 선정 절차를 거쳐 하루 650t 처리 용량의 친환경 소각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새롭게 지을 자원회수시설도 아마게르 바케처럼 주민 친화형 친환경 시설이자 명소가 될 것"이라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경제적 이득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완성도 높은 시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아마게르 바케가 코펜하겐에서 볼 수 없던 스키장을 지어 환영 받았듯 광주도 어떤 시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예산 확보전 본격화

민중 전남도당과 정책협의회 정부 구조조정 계획 대응 여야에 현안사업 협조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세번째)가 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가 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 의중에 상응하는 예산 구조조정에서 나서면서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찾아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일 오전 서울 컨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22개 시·군별 현안에 대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개호·김승남·김원아·김희재·서동용·소병철·윤재갑·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9개의 정책 지원과 60건의 지역별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 지원 사항으로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국가계획 반영 및 에타 면제, 광주-고흥 고속도로와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등 호남권 미래 SOC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안정적 지원과 남해안 종합개발정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정책, 전남도 국립

의대 신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해상풍력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025년 준공)과 보성-임성리 철도(2024년 준공), 광주-강진 고속도로(2024년 준공),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도로(2021년 10월 착공), 고흥 영남-포두 간 도로(2024년 착공 예정) 사업 등 전남지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의 적정한 투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핵심사업과 22개 시·군 별 주요 현안사업 등 60건의 예산 지원도 건의

했다. 지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고흥) 구축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 및 내년도 시설 설계 및 부대비 등 178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해상풍력단지 운영기술 공동연구·실증기지, 국립민속박물관 호남관 유치,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지리산 치유농업 캠퍼스, 국제명상센터 건립, 태양광 패널 사용후 재처리 클러스터 구축, 해양바이오 스마트팩토리센터 등이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폭염 예방 예비비 63억 긴급 투입

경로당 냉방·가축 스트레스 완화·고수온 대응 지원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지자 전남도가 예비비 63억원을 긴급 편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등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예비비를 최대한 긴급 편성, 시·군에 교부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폭염대응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축산·수산 등 분야별로 구체적 피해 예방대책을 지시한데 이어 김 지사는 2일 "폭염 피해예방 긴급 지원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모든 마을경로당 9212개소에 냉방비 7~8월 2개월분

개소당 30만원씩 총 2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냉방비 부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축산 분야는 폭염 피해를 입었거나 취약한 5000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 2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양식어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액화산소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등 신속한 폭염 예방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과도할 정도로 사전 대비를 하면 오는 재해·재난도 막을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갖추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AI·에너지·반도체 전략산업 기업 특별인센티브

광주시가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 전략산업 기업에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타지역 소재 기업이 광주에 투자 완료 시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AI·에너지·반도체 업종 기업에는 설비 투자보조금 2%를 특별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농수산물식품, 홍콩·타이베이서 인기

시장개척 수출상담...전북·매생이 등 218만 달러 업무협약

전남도가 홍콩·타이베이 시장개척 수출상담을 통해 전북과 매생이 등 전남 농수산물 218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출상담에선 전남 농수산 식품기업 10곳이 참여해 현지 50여 수입상과 152회의 상담과 교류 등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홍콩에서는 완도고급바다(주)가 매생이 10만 달러, 완도맘이 전북 8천 달러 등 총 10만 8천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이어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이 전북, 해조류 등 60만 달러, 삼면이바다가 한식 간편 조리식 40만 달러, 대륙식품(주)이 조미김 15만 달러, (주)풍든힐이 농수산물 10만 달러, (주)담우가 비빔나물 6만 달러 등 총 131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타이베이에서는 다시마전복수산물 전북가공식

품 30만 달러, 삼면이바다가 한식 간편조리식 20만 달러, 완도고급바다가 매생이 가공식품 10만 달러,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이 10만 달러, 담우가 비빔나물 5만 달러, 가보팜스가 풀유자차 2만 달러 등 총 77만 달러 수출 길을 열었다.

이 밖에도 삼전복영어조합법인이 활전복을, 해누리(유)가 매실청을 수출해 현지 수입상과 수출상당 및 교류 기회를 갖는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타진했다.

장한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중국 남부권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인 홍콩에서의 수출상담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수산물식품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